

# 하나금융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전달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는 이웃사랑과 행복한 금융 실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00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통한 행복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서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성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한 본격적인 사회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모두의 기쁨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늘어난 반면 기업들의 기부 참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금융그룹의 14개 관계사가 마련한 이번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 주세요’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소외된 이웃의 희망을 잇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임팩트’와 ‘하나 파워 온 챌린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사회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소셜벤처의 공간 제공을 위한 ‘하나 소셜 스퀘어’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원큐 애자일랩’을 통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❶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를 멈춰주세요

